

제주의 또 다른 관문

한림로 인근의 바닷가는 아름다운 바다색과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을 즐기러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오늘날 관광지로 유명한 이곳은 과거 제주로 들어오는 또 다른 관문이었다.



한림로 |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227-1 ~ 한림읍 수원리 1034-1(약 9.3km)

협재로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608-1 ~ 한림읍 협재리 665(약 3.6km)

금능길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634-1 ~ 한림읍 금능리 2689-1(약 1.3km)

비양도길 |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3028-1 ~ 한림읍 협재리 3024(약 1.7km)

옹포1길 |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588-2 ~ 한림읍 옹포리 508-1(약 0.5km)

월령안길 |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98-1 ~ 한림읍 월령리 434(약 0.4km)

한림로/협재로/금능길 | 협재해변과 금능으뜸원해변

한림읍은 과거에 행정구역상 우면에 속했다. 그러다 신우면과 구우면으로 나뉘면서 지금의 애월지역은 신우면에 한림지역은 구우면에 포함되게 되었다. **한림로**는 한림 지역의 중추적인 도로라는 의미이다. 한림읍의 가장 서쪽 마을인 월령리에서 시작해서 금능리, 협재리, 옹포리 등의 여러 마을을 지나 수원리까지 이어진다. 이 길은 한림 지역의 여러 마을길들과 연결되는데 그 중 **협재로**는 협재리를 지나는 중심 도로이다. 협재리(挾才里)는 쉼나무가 많아 섭재라고 부르다가 협재가 되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제주있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협재해변은 하얀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비양도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정취를 풍긴다. 협재해변의 서쪽으로는 또 다른 해수욕장인 금능으뜸원해변이 있다. 이곳 역시 협재해변 못지 않게 낭만적인 풍경을 보여준다. 해질 무렵의 아름다운 노을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묘미이다. 바닷물이 그리 깊지 않아 가족들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 두 해변은 관광객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서 여름이면 해수욕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한림로**에서 금능으뜸원해변까지 이어지는 **금능길**은 마을의 명칭을 반영한 이름이다. 금능리(金陵里)는 옛날에 배령리(盃令里)라고 불렸다고 한다. 마을 안에 잔처럼 생긴 언덕이 있어서 그렇게 불렸다는 설과 목사가 말을 타고 가다 이곳에서 잠시 쉴 때 잔을 올린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배령이란 말이 제주어로 벌레를 뜻하는 버랭이와 비슷해서 좋지 않다는 생각에 금능으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협재해변

비양도길 | 비양도

협재해변에서 마주 보이는 비양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비양도길**은 비양도의 해안을 따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는 길이다. 비양도는 화산섬 제주의 마지막 화산활동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 바다에서 갑자기 산이 솟아오르고, 네 개의 구멍에서 붉은 물이 뿜어져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전형적인 화산활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의 화산활동으로 비양도가 생겼다고 추정하고 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중국 쪽에서 날아오던 섬이 한 여인이 “섬이 날아온다”고 소



비양도

리치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춰버렸는데, 그것이 비양도가 되었다고 전한다. 비양도의 정상에 오르면 한림 지역의 해안가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그래서 삼별초를 토벌하러 왔던 고려와 원나라의 군사들 중 일부는 제주에 상륙하기 전에 비양도에 머물면서 삼별초 군의 동태를 살피기도 했다. 이렇게 비양도는 아름다운 풍경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섬이다.

옹포1길 | 옹포포구



옹포포구

옹포포구로 이어지는 **옹포1길**을 비롯한 마을길들은 옹포리의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옹포리(瓮浦里)는 지형이 게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당’이라 불리다가, 하나뿐인 포구라는 뜻으로 독개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그러다 포구가 항아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옹포라고 불리게 되었다. 옹포포구는 예전에는 명월포구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이 포구는 제주로 들어오는 또 다른 관문의 역할을 했다. 김통정 장군이 이끄는 삼별초 군사들이 이곳을 통해 제주에 들어왔으며, 이후 삼별초를 토벌하기 위한

고려와 원나라의 연합군 역시 옹포포구로 제주에 들어와 이 일대에서 삼별초와 큰 전투를 벌였다. 그 이후에도 목호들을 토벌하러 온 최영 장군의 군사들도 이곳으로 제주에 상륙한 것을 보면 당시에는 옹포포구가 제주로 들어오는 주요한 포구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때는 비양도에 정박한 왜선들과 교역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월령안길 | 월령리 선인장 군락지

월령안길에는 월령리에 자생하고 있는 선인장 군락지가 있다. 한림의 해안은 사람들만 들어왔던 것은 아니다. 식물들도 바다를 떠돌다 이곳에 들어와 정착하기도 했는데 월령리

의 선인장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선인장이 자라는 곳하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사막을 상상하지만 월령리의 선인장 군락은 해안가 바위틈에서 자라고 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선인장은 해류를 따라 월령리 해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선인장을 마을 사람들은 손바닥을 닮았다고 해서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야생에서 자라는 선인장 군락지라고 한다. 마을에서는 선인장을 여러모로 쓸모있게 사용했는데 돌담에 심어 경계를 표시하기도 했고, 뱀과 쥐의 피해도 막았다고 한다. 약재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선인장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마을의 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